

# 전남지사 후보 4월 10·11일 합동연설

## 민주, 목포·순천서 ... 9·12·14일 TV토론회

### 17일 화순 하니움서 후보 선출... 박준영 지사 오늘 출마 선언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방식이 확정되면서 후보 합동 연설회와 TV토론회 등을 통한 후보 검증 작업이 이뤄지며, 전남지역 22개 기초단체장 후보 정책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또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25일 '3선 출마' 선언과 함께 26일 예비후보등록까지 할 계획이어서 전남지사 경선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17일 전남지사 후보선출대회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서부와 동부에서 각 1회 후보 합동연설회를 갖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TV토론회도 3차례 예정돼 있다.

후보 합동연설회는 서부권은 4월10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동부권은 4월11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각각 개최된다. 또 후보 TV

합동토론회는 4월9일과 12일, 14일 모두 3차례 예정돼 있으며, 1~2차 두 차례는 녹화방송, 마지막날은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또한, 50%가 반영되는 도민여론조사는 경선 날 전인 15~16일 이를 동안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는 경선관리위원회가 15개 여론조사 기관을 제시하고, 이중 2개 기관씩을 3명의 후보가 제외시키도록 해 남은 9개 기관 중 2개를 추천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2개 기관은 700샘플씩 여론조사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게 조사를 한 뒤 2개 기관의 결과를 산술평균해 최종 결과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후보 경선과 관련해 토론회와 합동연설, 여론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잠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지만 현지 실사 등을 통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25일 나주시와 화순군을 시작으로 기초단체장 후보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선에 앞서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를 상대로 공약과 자질을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나주와 화순 외에는 토론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장흥과 영광, 장성 등 후보가 1명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토론회는 지역위원회와 협의해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준영 전남지사 측 관계자는 이날 "중앙당의 경선방식이 확정된 만큼 지사로서도 25일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다"며 "선거대책본부 등도 곧바로 꾸려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26일께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남지사 작은 이계호 행정부지사가 직무대행체제를 맡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침묵에 잠긴 지도부 민주당 정세균(가운데) 대표와 송영길(왼쪽), 김민석(오른쪽)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丁-鄭-孫 지방선거 공천 '파열음'

## 민주, 야권 연합·전략공천 싸고 갈등 재연

민주당 '빅3' 사이의 역학관계가 미묘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협력적 경쟁관계를 지속해 왔던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보이고 있는데다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의원의 관계가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민주당 '빅3'의 미묘한 관계 변화 배경에는 지방선거 공천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정 대표와 손 전 대표의 균열은 야권의 연합공천 협상이 발단이 됐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소수 야당에 공천을 양보하려 했던 수도권 기초단체장 지역이 지

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손 전 대표를 도왔던 인사들이 지역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이다.

손 대표 측에서는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서운함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부 측근들이 손 전 대표의 조기 복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주 회동을 계획 중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복당 이후, 관계 정상화가 기대됐던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의원의 관계는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세균 대표 측에서는 지난해 4월 전주 덕진 재보선 당시 정 의원 대신 민주당 김근식 후보를 도왔던 인사들의 전략공천 카드를 거론하고 있는 반면 정 의원 측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丁)-정(鄭) 갈등'이 재연됐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잠재적 견제 대상인 정 의원과 손 전 대표의 관계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 의원 측에서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손 전 대표 측에서는 "시기 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맺었던 구원과 견제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빅3'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진로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각자 선거운동을 통해 당내 영향력과 대선 잠재력을 부각하는데 매진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배심원제 보다 국민경선으로 가야"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지방선거 공천혁명' 토론회서 제기 "정당 기득권 보호 변질... 유권자에 후보자 선출권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입한 시민(국민)공천배심원제가 잘못 운영되면 정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는 만큼 공국적으로 유권자에게 후보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완전 국민참여경선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24일 한국지방발전연구원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방선거 공천혁명'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려면 배심원단 구성의 공정성이 우선 보장돼야 하고, 도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현재까지 공천 진행과정을 보면 공천배심원제의 성공적 정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부정부패자 공천불허요건을 슬그머니 완화했으며 사면 및 복권

된 경우에도 공천 신청을 허용, 도덕성 기준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비리전력자 일괄 배제라는 공천 기준에서 뒷걸음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선정 방법과 관련, 특정 정파나 특정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후보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교체 지수나 업무평가 지수를 개발, 1차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경쟁력 지수 같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공천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천배심원제가 잘못 운영되면 국민 참여를 가장해 각 정당의 기득

권을 지키는 공천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며 "공국적으로는 정당의 공천은 유권자에게 선출권을 부여하는 소위 완전 국민참여 경선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학회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안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치 권의주의를 배격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추는 공천제도 개편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여준 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여야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과정을 보면 한국 정치의 선진화가 매우 압박해 보인다"며 "각 정당의 혁명적인 공천 개혁 없이는 지방자치,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발전연구원은 25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며, 행사에는 한나라당 남경필, 진 영, 진수희 의원과 김호열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정희 전 한국정치학회장 등이 참석한 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선거개입 논란속 추대통령 전북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전라북도를 방문, 김완주 전북지사로부터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대책, 생활실현형 녹색성장 추진 방안 등 전북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말 확정

된 새만금 지역의 동북아중심도시 추진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새만금 주변 하천인 만경·동진강의 수질 개선에 정부 차원의 힘을 보태고 한식 세계화 차원에서 익산시의 동북아 식품

도시 추진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북이 민주당의 텃밭인데다 민주당이 자신의 지방 업무보고 순시를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행보'라고 비난하는 점을 고려한 듯 "정치 일정과 상관 없이 경제위기 극복과 국정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비/지/원 전기소방**

자격취득종목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실업자 및 계약제 대상 : 실업자 야간대생 등 현재 접수 중, 선착순 00명 **매월 초 개강** 6개월, 주 5일, 1일 4시간(오전반, 야간반) ※ 본원 방문하여 상담접수 바람

직장인 과정(국비 100% 환급) 산재장애인(무료)훈련수당 지급 특전 - 병원, 호텔, 빌딩, 아파트 등 전기관리직 및 전기 전문 업체 취업보장

병역특례 군 미필자, 군면제를 받는 병역특례 업체 / 취업알선(입영연기100%)

문의 ☎ 374-2404, 373-1959 **건설전기기계학원**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http://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핫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http://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